

2021 NEW

나 없이 EBS 풀지마라



◆
수능특강
독서편

▣ 225개의 변형 문제 수록
▣ 647개의 평가원 선지

전형태 편저

양질의 변형 문제로 수특 비문학을 마무리합니다.

나BS 독서편에서는 수특 전지문에 대한 100% 변형문제 225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양질의 문제로 독해력과 사고력을 트레이닝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특 비문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시험장에 강한 실력 국어 전형에

Step 04 변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며, 일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활동 대사량의 합이다. 기초 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갑상샘이 담당하는데,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갑상샘 항진증은 기초 대사량이 커져서, 갑상샘 저하증은 기초 대사량이 작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음식 속의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C₆H₁₂O₆)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이산화 탄소 6몰과 물 6몰이 생성되고, 686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C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나며,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에는 이산화 탄소 6몰, 물 12몰과 ATP 38몰이 생성된다.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화합물인데 각부분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1몰당 7.3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 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도 소모한다. 그러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kcal의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이 중 80% 이상은 열로 변한다. 이 정도의 열이 물 안에 남아 있을 경우 시간당 3C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붕괴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주로 피부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즉 기초 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바로 열의 방출과 관련이 있다.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전도되어야 한다.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열과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열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대류나 복사열 방출을 하기 어렵다.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물의 증발 잠열은 540kcal/kg 정도이므로 1리터 정도의 땀의 증발로 540kcal의 열을 제거할 수 있다. 땀은 스테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추 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 난다.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을 통해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원을 절약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너지원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땀 때문에 말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활용한다.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 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 이러한 형태로 방출되는 열량이 시간당 9kcal 정도로 적지만 동물들은 알고 같은 호흡을 통해 열의 방출량을 늘린다.

*기초 대사율 : 실제 측정된 기초 대사량과 표준 기초 대사량의 차이를 표준 기초 대사량으로 나누어서 구한 백분율.

04.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갑상샘 항진증에 걸린 사람은 걸리기 전과 활동 대사량이 동일할지라도 대사량은 더 커진다.
- ② 체내의 지방은 영양소가 과다 섭취되었을 때 축적되고,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소모된다.
- ③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단위 피부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은 피부 면적이 넓을수록 크다.
- ④ 동면은 기초 대사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통해 특별한 에너지원 없이도 겨울을 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⑤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할 때보다 체내에서 완전히 반응할 때 물은 더 많이 생성되지만 에너지는 더 적게 방출된다.

05.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외부 온도가 [㉠] 경우에는 [㉡]로 방출하는 열의 양이 많아지지만, 이와 반대 상황에서는 체온이 [㉢]하기 때문에 [㉣]을 분비하는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 | | | | | |
|---|----|----|----|-------|
| | ㉠ | ㉡ | ㉢ | ㉣ |
| ① | 상승 | 복사 | 상승 | 아드레날린 |
| ② | 상승 | 복사 | 하강 | 땀 |
| ③ | 상승 | 대류 | 상승 | 아드레날린 |
| ④ | 하강 | 복사 | 상승 | 땀 |
| ⑤ | 하강 | 대류 | 하강 | 아드레날린 |

06.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은 함께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갑'은 트레이너의 조언대로 식사량은 유지한 채, 운동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완전히 체중을 줄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었던 '을'은 빠르게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운동은 하지 않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 ① '갑'은 활동 대사량이 늘어나 에너지 소모량이 커져 지방을 소모하게 되어 체중을 줄일 수 있게 된다.
- ② '갑'이 운동을 할 때, 0.5리터 정도의 땀을 흘렸다면 270kcal의 열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을'이 다이어트를 끝내고 원래의 식사량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 ④ '을'이 운동까지 병행하여 지방을 모두 소모하고 나면 단백질이 소모되기 시작할 것이다.
- ⑤ '을'의 다이어트가 지속될 경우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갑상샘 저하증에 걸릴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BS 독서편,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신용 조잡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의고사 수준의 고퀄리티 변형 문제가 전지문에 들어 있습니다. 전문 문제 출제팀과 전형태 연구실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완성도 높은 문제는 나BS 독서편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이 책의 순서

나BS 수능특강 | 독서편

	나BS	수특
PART 01.		
개념 학습		
1강-1.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08	09
1강-2. 어업에서의 생태 통합 양식	15	12
2강-1. 용의 분석 심리학	21	16
2강-2. 비용-편익 분석	27	20
2강-3. 대중문화의 기획과 타자 지향적 장소	34	24
2강-4. 예술 작품의 해석	41	28
2강-5. 복제자 이론	47	32
3강-1. 행정 규제의 원칙과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	54	36
4강-1. 후기 인상주의의 두 가지 경향	61	40
4강-2. 데카르트와 칸트에게 있어 철학적 의심의 의미	68	43
PART 02.		
인문_예술		
1. 관학과 과거제를 개혁하려던 유형원의 제안	76	50
2. 분석과 직관	83	54
3. 포코니에의 정신 공간	90	58
4. 랑케와 실증주의 사학	97	61
5. 헤라클레이토스와 언어	104	65
6. 다른 사람의 마음 문제	110	68
7. 신명론	117	72
8. 모방론 비판	122	75
9. 웹툰의 연출	129	79
10. 연주자의 음악 미학	135	82
11. 움직임과 키네틱 아트	141	85
12. 계획도의 특성	147	88
13. 영화의 내러티브	154	92
PART 03.		
사회_문화		
1.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한 재화의 분류	162	97
2. 인정 투쟁	169	102
3. 특허권과 영업 비밀	176	108
4.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결정되는 상품 소비량과 노동 공급량	184	112
5. 겔렌의 문화 개념으로 본 스포츠 문화의 형성	191	117
6. 자산 유동화 증권	198	121
7. 대작 관행에 관한 법적 쟁점들	206	124
8. 화폐의 기능과 가치	213	128
9. 공간의 재현	219	132
10. 필립스 곡선	226	138
11. 법률의 효력과 소급 입법	232	141
12. 공공 장소에서의 상호 작용	238	144
13. 인과 관계와 상관관계	245	148

	나BS	수특
<hr/>		
PART 04. 과학_기술		
1. 오로라의 원리	254	154
2. 대사량의 열의 이동	261	157
3. 지구 온난화 논쟁	268	161
4. 열용량	275	167
5. 분리 뇌와 해석기	282	171
6. 지구 냉각설과 빙하기설	289	174
7. 진공의 정의와 압력의 측정	296	178
8. 데이터 트랜잭션	303	182
9. 회전 거울을 이용한 광속 측정	310	185
10. 수중 위치 추정 방법	317	188
11. 군집 분석	324	191
12. 신체 부착형 인장 센서	331	196
13. 오토 사이클 엔진과 이를 개선한 옛킨슨 사이클 엔진	338	200
14. 촉각 센서로서의 피부	345	203
<hr/>		
PART 05. 융합		
1. 패턴 인식	354	209
2. 미학의 신경 과학적 연구, 신경 미학	362	214
3. 서구식 지도의 유입과 중화적 세계관의 변화	369	218
4. 철학과 과학의 사고 실험	376	222
5. 인공 지능의 알고리즘과 인공 초지능의 통제 문제	383	226
6. 음악적 감정의 윤리적 영향과 즐거움	390	230
7. 라마르크의 진화론과 '진보주의'	396	234
8. 대기의 색채	403	239
9. 데카르트의 운동량 보존 법칙	411	244
10. 시간 측정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의미 고찰	418	248
11. 과학적 실재론	425	252
12. 칸트 철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432	257
<hr/>		
PART 06. 실전 학습		
1회-1. 미시 상태의 수와 엔트로피	442	264
1회-2. 송고의 철학적, 예술적 의미와 가치	449	268
1회-3. 민법의 시효 제도	456	272
2회-1. 고전학파와 케인스의 통화 이론	463	277
2회-2.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	470	281
2회-3. 라그랑주점으로 설명하는 달의 기원	477	285
<hr/>		
정답과 해설	486	

2021 NEW

나 없이
EBS
풀지마라



수능특강
독서편

PART

01

개념 학습

✓ 225개의 변형 문제 수록
✓ 647개의 평가원 선지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2021 수능 국어 대비
실전 국어 전형테

Step

01

OX 문제를 통한 지문 이해 훈련

나BS 수능특강 | 독서편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 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않는다(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의 측면에서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우주의 완성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들은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가령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려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의 악이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아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OX 문제

- 01 긍정 신학과 부정 신학 모두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라는 것에 동의한다. (O / X)
- 02 신의 특성을 언급할 때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신의 전지전능함을 의심한다. (O / X)
- 03 세계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지금까지도 '악의 존재'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O / X)
- 04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와 작용의 관점에서 악이 존재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O / X)
- 05 '썩은 상태의 사과'나 '양분의 부족으로 존재하지 못하게 된 사과'는 모두 세계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O / X)
- 06 아퀴나스는 어떤 대상의 존재나 그 대상이 존재하도록 하는 과정은 모두 '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O / X)
- 07 아퀴나스는 신이 창조한 세계가 소멸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주의 완성'이라고 보았다. (O / X)
- 08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O / X)
- 09 아퀴나스는 신이 창조한 세계는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하기 위해 악을 세계에 안배하였다고 보았다. (O / X)

정답

O / X / X / O / O / X / X / O / O

- ① ¹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²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 신학이라고 한다. ³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않는다(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⁴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 → 기독교가 지배했던 중세 서양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는 것과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던 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신학의 입장이야. 신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은 긍정 신학과 부정 신학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해. 즉 긍정 신학과 부정 신학 모두 신의 전지전능함을 전제했고, 그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입장의 차이가 있었던 거야. ⁵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⁶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 ⁷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⁸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 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용어만을 사용한 긍정 신학의 입장인데, 신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않는다.'를 제시했던 부정 신학의 입장인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악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려운 대상일 수밖에 없겠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있는데 악이 있는 것도 이상하고, 악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니까.
- ② ¹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 신학의 난제인 '악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를 소개하고 있어. '논증'이란 '어떤 판단의 진리성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일로, 쉽게 말해 참이라고 주장되는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이유나 증거들을 밝히는 것'이야. ²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³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⁴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⁵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⁶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 아퀴나스가 주목한 것은 '존재'와 '작용'이라는 개념이야. 여기에서는 '(온전한) 사과'를 존재로, 사과가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을 '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어. 또 다른 예로 적용해 볼까? 최고의 재료들로 방금 만든 '떡볶이'가 있다고 하자. 이 떡볶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떡볶이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었다가 이틀 정도 지나서 보니 곰팡이가 마구 피어 있어. 그걸 이때의 떡볶이는 완전한 상태였을 때에 비해 결핍되었기 때문에 '존재의 관점에서 악'이라고 할 수 있지. 다시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으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냄비에 물을 붓고 떡을 넣고 준비한 재료들을 넣어서 떡볶이를 완성했다면 이 과정은 '작용'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고추장을 빼먹거나 어묵을 빼먹었다면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작용의 관점에서 악'이 되겠지. ⁷이를 통해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⁸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 이처럼 아퀴나스는 기존에 신학들이 고수하던 '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하다'라는 관점을 해치지 않으면서, 악의 존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 ③ ¹그렇다면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의 측면에서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 '악의 존재'에 대한 아퀴나스의 정의는 그렇듯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아퀴나스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통해 아퀴나스의 논증이 더욱 힘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지. 이 반박에 대해서 아퀴나스가 어떻게 논증했는지 살펴보자. ²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³우주의 완성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들은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⁴가령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러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⁵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 '악이 결핍이라면, 왜 처음부터 결핍되지 않은 세계(=악이 없는 세계)를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반박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우주의 완성을 위해 결핍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어. 아퀴나스에 따르면 '결핍된 것=불완전한 것=소멸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세계가 바로 신이 계획한 '완전한 상태', 곧 '우주의 완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궁금해져.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완전하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불완전하게 만들었나니까?'
- ④ ¹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²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³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⁴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의 악이든

1.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 우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선'과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어. 악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도 않고, 신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여지도 없지.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지? 아퀴나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확인해 보자.

- ⑤ ¹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 ²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³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할 수 없다. →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만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의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악을 만든 것이 신의 의도'라고 오해하거나, 또는 '신이 의도적으로 흠결 없는 완전한 세계가 아닌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었다'고 오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하다'라는 믿음에는 흠이 생겨. ⁴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⁵ 즉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 아퀴나스는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서, '신은 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존재'로서 '신이 창조한 세계 역시 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세계이지만 이는 영원성의 관점에서 그러하다'고 주장했어. '세계=영원히 완전한 것'이지만, '인간'은 언젠가 죽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결핍 상태에 종속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를 보완하여 완성을 향해 간다고 보았어. 이러한 아퀴나스의 논증에 따르면 '악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은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하다'라는 믿음을 해치지 않고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⁶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아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Step

03

구조 분석

나BS 수능특강 | 독서편

(①) 신학	(②) 신학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 용어를 사용함.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 →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은 '~않는다(아니다)'

공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질문 - (③)은 왜 존재하는가?

토마스 아퀴나스

- 세계 = (④)와 (⑤)이 실재한다고 봄.
- ∴ 악 = (④)와 (⑤)의 (⑥)
- 세계의 창조 목적인 '(⑦)'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⑥) 상태

악

- (④)의 관점에서 악
- (⑤)의 관점에서 악

왜 처음부터 (⑥)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 '(⑧)'을 위해서

- (⑧) =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⑨)될 것들은 사라지고 (⑩)적인 것들로 가득찬 상태
- 세계 = (⑪)한 상태 → (⑫)한 상태로 이행 = (⑧)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의 악이든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 인간에게 (⑬)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신이 창조한 세계가 불안정한 세계?

- 신은 (⑭)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
- ∴ 세계 = 그 자체로 영원히 (⑮)한 것
- (⑯)한 인간=스스로 세계와 자신의 (⑰)을 (⑱)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인식할 수밖에 없음.

↓

후대에 높이 평가, 근대 진보적 역사관 형성에 영향

정답

① 긍정 ② 부정 ③ 악 ④ 존재 ⑤ 작용 ⑥ 결핍 ⑦ 선 ⑧ 우주의 완성 ⑨ 소멸 ⑩ 불멸 ⑪ 불완전 ⑫ 완전 ⑬ 선 ⑭ 영원 ⑮ 완전 ⑯ 유한 ⑰ 불완전함 ⑱ 완전함

Step

04

변형 문제

나BS 수능특강 | 독서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독교가 지배한 사회였던 서양 중세에서는 누구나 당연히 신을 믿어야 했고, ㉠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서양의 중세 신학에서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여기고 신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정의할 때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한 신학을 긍정 신학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신의 전지전능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신은 인간의 이해와 지성을 완전히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않는다(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 이러한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 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악을 부정해야 하는데, 이는 분명 모순이 된다. 반대로 악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완전한 신의 능력에 어떤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신을 변호해야 할 사명이 기독교 철학자들에게 주어졌고,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사과가 존재이고,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작용인 것이다. 아퀴나스는 바로 이 존재와 작용의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 신은 왜 처음부터 존재와 작용의 측면에서 결핍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우주의 완성이란 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소멸될 것들은 사라지고 불멸적인 것들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한다. 가령 인간의 경우 선을 행하고 실천하는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지만, 욕망과 감정에 휘둘러 저지른 악행은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퀴나스는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며, 이 완전한 상태가 바로 신이 계획한 '우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악은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명제를 떠올릴 수 있다. 악은 오로지 선을 위해서만 또는 우주의 완성을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애초에 제기된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 처음부터 완성된 세계를 창조하였다면 어떤 의미의 악이든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신은 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아퀴나스는 신이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악을 이 세계에 안배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알 수 있게 악을 안배하였다면, 신이 악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불완전한 세계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즉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견해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아 근대의 진보적 역사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0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독교 철학에서는 신의 선함과 완전무결함을 부정할 수 없기에 대신에 악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 ② 중세의 일부 신학자들은 신을 규정할 때에 부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당하다고 보았다.
- ③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방법을 통해 기존의 신학적 난제를 증명했다.
- ④ 긍정 신학에서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 ⑤ 스킨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악행과 불합리를 우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02. 밑글의 ㉠~㉣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견해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 : 신의 완전무결성은 보편적 법칙과도 같은 것으로서 모든 신학 논증의 대전제가 되는 요소이다.
 ㄴ. ㉡ : 불완전한 세계를 만듦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려는 신의 안배이다.
 ㄷ. ㉢ : 작용이 있어야 존재가 있기 때문에 둘을 동시에 결핍이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ㄹ. ㉣ : 신에게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03. 밑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수 세기 앞서 살았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을 자연악과 윤리악으로 나누어 악의 존재 증명을 시도했다. 자연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이 창조한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온전히 악할 수 없기에 선의 결핍의 정도로 악을 판단한 것이다. 곧 신과 대비되는 만물의 유한성을 악의 존재를 통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윤리악은 자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인간이 선택한 것이다. 신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유일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추론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선택의 자유를 가져 최고선인 신을 향유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선을 향유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할 사물을 향유하고 신을 향유하지 않는 것은 곧 자유의지가 존재의 위계질서에 어긋난 것이 되어 윤리악의 발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 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와 달리, 신이 가장 선하며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에 동의하겠군.
- ②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자연악의 개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 개념이 연결될 수 있군.
- ③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신이 창조한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하겠군.
- ④ 토마스 아퀴나스가 인간을 진보하는 존재로 본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본 것과 유사하군.
- 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핍은 신의 의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결핍은 신이 아닌 존재의 한계를 의미하는군.

Part 1. 개념 학습 | 빠른 정답

01 ①	02 ③	03 ①	04 ②	05 ③
06 ①	07 ②	08 ②	09 ①	10 ④
11 ②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③	17 ⑤	18 ⑤	19 ②	20 ②
21 ③	22 ①	23 ④	24 ②	25 ②
26 ④	27 ⑤	28 ①	29 ②	30 ⑤

1강-1. 토마스 아퀴나스의 악에 관한 논증

1. ①

1문단에 따르면, 기독교 철학에서 신의 선함과 완전무결함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기독교 철학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악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악이 실재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해왔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 ② 1문단의 “인간이 신을 정당하게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처럼 ‘~않는다(아니다)’라는 방식이라고 보았다. 이를 부정 신학이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2문단의 “그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존재와 작용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해 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와 5문단의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1문단의 “긍정 신학자들과 부정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확답을 내놓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는데, 어째서 이 세계에는 악이 존재할까?’라는 문제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5문단의 “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는 유평피아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수많은 불합리와 악행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와 2문단의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알 수 있다.

2. ③

- ㄱ. 1문단의 “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다”, 5문단의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전지전능하고 완전하며 선한 신이라는 개념과는 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ㄴ. 5문단의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모든 것은 완성을 향한 진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은 인간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을 이 세상에 안배한 것이며,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인지한다. 따라서 신이 악을 이 세상에 안배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아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도록

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ㄴ. 5문단의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세계가 그 자체로 영원히 완전한 것이 되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를 통해 아퀴나스는 신이 세계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ㄷ. 2문단의 “말하자면 사과라는 존재가 썩은 상태의 사과라면, 존재의 관점에서 썩은 사과는 온전한 사과에 대한 결핍이므로 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를 존재하게 하는 과정에서 양분이 부족하여 사과가 존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양분의 부족은 작용의 관점에서 사과에 대한 악이 되는 것이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를 알 수 있다.”를 통해, 신의 선한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과가 존재한다면, 사과를 존재하게 한 과정이 있을 텐데”에서 설명했듯이 ‘작용이 있어야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아퀴나스의 견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둘을 동시에 결핍이 없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3. ①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 모두 신이 가장 선하며 완전한 존재라고 보았다. <보기>의 ‘최고선인 신’, ‘신과 대비되는 만물의 유한성’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이 가장 선하며 완전한 존재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퀴나스는, 가장 선하고 완전무결한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악의 존재’에 대한 논증을 제시하였다.

[오답 풀이]

- ② <보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연악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는 인간을 비롯한 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의 유한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였고, 윌겔의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인간의 유한성과 세계에 대한 불완전한 인식으로 인한 악행에 대해 논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아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아퀴나스는 신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창조한 완전무결한 세계를 창조하였지만, 유한한 인간은 스스로 이 세계와 인간 자신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으며 세계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는 5문단의 ‘신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아퀴나스는 유한한 인간이 인식하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보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추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이 아닌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인간은 이미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진보해가며 선을 깨닫는 존재로 보았다. 즉,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모두 인간이 스스로 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⑤ 2문단에서 ‘아퀴나스가 말하는 악은 신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한 목적인 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핍 상태를 알 수 있다. 즉 신은 전체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였지만, 존재와 작용의 측면을 보았을 때에는 결핍이 있고, 이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였다. 아퀴나스는 결핍이 신이 목적인 의도, 곧 선에 이르지 못한 존재나 작용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보기>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창조한 만물은 본래 선하나 신과 같이 완전할 수는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유한성을 ‘악의 존재’, 곧 ‘선의 결핍’으로 드러낸다고 하였다. 즉 존재의

나 없이 EBS 풀지마라

국어강사 전형태

대성 SNC 출판 대표
대성마이맥 국어 대표 강사
나 없이 기출 풀지 마라 저자
강남대성 3년 연속 최상위 강의 평가
이강학원 국어과 최다 인원 마감 강사

값 19,000원



9 791188 881307 53700
ISBN 979-11-88881-30-7